

기고

농촌 지역 배터리 안전, 작은 실천이 큰 재앙을 막습니다

대도시에서는 공유 킷보드 화재가 주목받고 있지만, 장흥과 같은 농촌 지역의 상황은 다릅니다. 읍·면 단위가 많은 우리 지역에서는 노약자용 전동카트, 전동자전거, 농기계 배터리에서도 동일한 화재 위험이 존재하며, 소방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주택에서는 작은 불꽃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678건 발생했으며, 이 중 전동킷보드 화재가 71%로 가장 많았고, 화재의 54% 이상이 '충전 중에 발생했습니다'.

올해 8월에도 장흥군 지역에서 노약자용 전동카트에서 화재 발생되어 전체가 전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격이나 과충전, 비인증 충전기 사용 시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수 초에서 수 분 내에 화재와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은 소방차 출동시간이 도시지역보다 원거리 지역이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속 예방 실천법 첫째, 현관이나 비상구 앞에서는 절대 충전하지 마십시오. 둘째, 외출하거나 잠자리에 들 때는 반드시 충전을 중단하십시오. 셋째, KC 인증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고, 충전이 끝나면 곧바로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넷째, 배터리가 부풀거나 변색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교체하십시오.

다섯째, 가급적 건물 외부의 환기가 잘되는 안전한 장소에서 충전하고, 인증된 제품만 사용하십시오.

배터리 화재는 순식간에 번지므로 신속한 인지와 빠른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연기형)는 화재를 가장 빨리 알려주는 장치로, 가정이나 배터리 충전장소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장흥소방서는 군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배터리 화재 예방 홍보와 단독경보형감지기(연기형) 보급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 한 분 한 분의 실천입니다. 오늘 충전을 뽑고, 집 안의 화재위험을 점검하는 그 작은 행동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장흥소방서장 문병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여성을 사랑해도 당신만 행복하다면 나는 기쁩니다." 잠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일이다. 샌드라데이 오코너의 말이다. 오코너는 미국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연방대법관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2005년 은퇴를 선언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다. 그런데도 물러난 것이다. 왜일까. 바로 남편 때문이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을 가까이서 돌봐주기 위해서다.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샌드라데이 오코너의 교훈

그는 이미 부인인 오코너는 물론 자기 자신까지도 인지하지 못했다. 요양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치매환자의 생활은 자신에게는 천국일지 모르지만 가족에게는 지옥이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때문에 치매환자를 소홀히 돌본다고 무조건 욕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결코 쉽사리 돌을 던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코너는 엄청난 명예를 갖고 있는 연방대법관까지도 놔버렸다. 대단하지 않은가.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언젠가 남편이 요양원에서 만난 치매여성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을 봤다. 서로 애무를 담은 물론 손을 잡고 산책도 하는 등. 하지만 그런 현상들이 오코너에게는 기쁨

으로 다가왔다. 그렇게라도 남편이 행복하길 바랐다.

오코너 부부의 아들들 "아버지는 마치 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년 같아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정서적 안정을 찾게 됐으며 좋아하세요." 줄곧 자살 이야기만 했던 아버지가 사랑에 빠진 뒤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것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처럼 누구나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도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아니 타인의 견지에서 보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각각 자신의 시각에서만 보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아쉬우라정이 되지

않을까. 자기 색깔만 고집하기 때문에 노란 눈은 세상이 노란색이라고, 빨간 눈은 빨간색이라 우길 것이다. 그러니 점점이나오겠는가. 때문에 날마다 머리 터지게 싸우지 않겠는가.

권력층은 권력층대로, 재벌들은 재벌들대로, 일반국민들은 그들대로. 때문에 실권을 하고, 사업이 망하고, 살인을 하는 등 막가와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도 보도록 하자. 그래야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 다양한 삶도 살 수 있으니까.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코너의 삶의 자세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혹자는 말할지도 모른다. 그의 남편은 인간무능력자 상태인 치매환자니까 가능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아무리 인지능력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그럼 혹자가 우기듯이 그런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매우 영광스런 자리인 연방대법관 자리를 사퇴한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것도 극도의 지남력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인 남편을 위해, 생각을 다시 각자에게로 돌려보자.

나이 든 치매환자인 남편 또는 아내를 위해서 그런 영광스런 자리를 던질 수 있는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생각을 달리하면 가능하다. 세상이 달리 보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성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지금도 한창 싸우고 있는 정치인들, 자칭 상류층이라는 사람들, 재벌 생각을 달리 가져보라. 역사사지를 해보라. 분명히 뭔가가 달라질 것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작은 습관이 큰 안전을 지킵니다

최근 부산과 서울의 아파트에서 전동오토바이 배터리 화재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는 총 627건 발생했으며, 이 중 77%가 전동킷보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배터리 화재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상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어 휴대전화, 노트북, 전동킷보드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됩니다. 하지만 충격을 받거나 과충전, 비인증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곧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현관이나 비상구 등 대피 통로에서는 절대 충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잠잘 때나 외출할 때는 충전을 멈추어야 합니다.

셋째,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고, 충전이 끝나면 곧바로 플러그를 뽑는 습관이 필요

합니다.

넷째, 배터리가 부풀거나 변색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특별한 사고가 아니라,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의 작은 습관 변화가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오늘 충전을 뽑는 그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장흥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조대성

오늘의 운세 2025년 9월 5일 금요일 (음력 7월 14일)

48년생 무에서 유도전경신이 필요하다.60년생 의미 있는 성과 지략으로 해야 한다.72년생 멋있어지기 위한 노력을 더해보자.84년생 인연을 낚는 필연 사람이 보여진다.96년생 눈물 멈추지 않는 건물에 빠져보자.

49년생 사춘기 소녀감성 별을 헤아려보자.61년생 충추고 노래하는 경사를 맞이 한다.73년생 아름다운 우경 공한쪽도 나누보자.85년생 빨간줄 시험지 반성문을 써내려보자.97년생 야만성행인지 되짚어봐야 한다.

50년생 울다하는 확실 밑줄을 그어보자.62년생 명분 없는 싸움 뺑기들이 행복하자.74년생 약하게 오는 경고 빠른게 알아보자.86년생 더하기 빼기 계산기를 두드려보자.98년생 부족한 부분은 정성으로 대신하자.

51년생 두말 필요없는 제안을 들어보자.63년생 여기저기 인기 걸음걸이 비싸진다.75년생 누가 걸하나 경쟁 월등히 앞서보자.87년생 굳게 하는 다짐 흥내라도 내보자.99년생 자칫부터는 욕심대세를 그려친다.

52년생 꿈꿈히 실패고 낭비를 막아내자.64년생 우여곡절 겪었던 미무리를 해내자.76년생 화성도 봉사도 열심히 해야 한다.88년생 뜨거운 박수를 허리 숙여 받아보자.99년생 목표 달성하는 기쁨 만세가 불려진다.

53년생 근사하고 멋있는 잔치가 벌어진다.65년생 광고 당기면 거대도장이 찍혀진다.77년생 격을 낮추고 차선으로 돌아서자.89년생 아들도 응과행복 구름을 받아보자.91년생 어느 편에 설지 저울질을 더해보자.

54년생 주려하지 마라 후유증이 오래간다.66년생 고생한 만큼 좋은 가격 받아내자.78년생 늦게 오는 약속을 계속해야 한다.90년생 좋게 하는 표현 이낌없이 해야 한다.02년생 책에 없는 공부로 지식을 넓혀보자.

55년생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행해가자.67년생 희망이라는 단어 눈으로 보여진다.79년생 내내 했던 걱정 심하게 끝나고.91년생 안심은 이른다.가디립을 더해보자.03년생 특별함이 담겨진 약속이 오고간다.

56년생 자존심의 상처 게으름이 원인이다.68년생 보람 있고 흐뭇한 선물을 받아보자.80년생 언사하는 부탁 담까지 받아내다.92년생 까다로운 조건 손사래 쳐야 한다.04년생 소중함 추억을 가슴으로 간직하자.

57년생 어설피든 흥고보다 지갑을 열어보자.69년생 해.마나 잔소리 원망만 들러온다.81년생 말로 맞는 화초리 각오를 다시 하자.93년생 열정 과패기로 관심을 받아내자.05년생 푸릇푸릇 청춘 불기능에 도전하자.

58년생 지는 법을 모르는 강함을 지켜내자.70년생 열렬한 구애로 허락을 받아내다.82년생 흥정은 거칠게 싸움하듯 해야 한다.94년생 얼굴에 꽃미소 기분이 날아간다.06년생 완벽하지 않은 중간점을 택해보자.

47년생 기대반 두려움 반 출발선에 서보자.59년생 궁여회통한다. 방법을 달리하자.71년생 싸우려가야.83년생 높여보자.83년생 잔뜩 깨나 출려야 원하는 길 얻는다.95년생 손소리 익히면 된다.점혀서 사용하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email address.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